

근대 대중지의 ‘역사’ 수용 방식과 글쓰기 전략*

— 『별건곤』을 중심으로

이 승 윤**

차 례

- | | |
|--|------------------------|
| I. 들어가며 | III. 양식에 대한 인식 부재와 글쓰기 |
| II. 『개벽』에서 『별건곤』으로 : ‘취미’와 ‘실익’을 통한 민중계몽의 모색 | IV. 호출된 역사와 ‘집단기억’의 구성 |
| | V. 남은 문제들 |

국문초록

이 글은 근대 대중종합잡지의 역사 수용 방식과 역사를 소재로 한 다양한 글쓰기 전략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간행되는 종합 대중지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당대의 사회·역사적인 분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대중에 대한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개벽사’에서 발행된 『별건

* 이 논문은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327-A00302)

**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곤』의 경우는 『개벽』의 강제 폐간 이후 변화된 사회 현실과 대중의 코드에 맞춘 출판물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본 연구의 일차 과제는 『별건곤』(1926. 11 ~ 1934. 6)에 실린 역사를 소재로 한 다양한 관련 독물(讀物)을 대상으로 그것의 글쓰기 전략들을 살피는 것이다. 『별건곤』에는 국내외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논평(論評),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한 사화(史話), 인물의 전기(傳記), 역사를 소재로 한 애화(哀話)와 실화(實話), 대담(對談), 설문(設問), 그리고 허구적 요소가 강조된 야담(野談)과 기담(奇談) 등 다양한 글들이 실려 있다. 과거 역사에 대한 호출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귀속성의 느낌과 사고를 부여하는 ‘집단 기억’을 갖게 했으며, 그것은 곧 『개벽』에서 『별건곤』으로 이어지는 민중운동의 기본적인 토양이기도 하였다.

창간 당시 ‘취미·실익잡지’를 표방하였던 『별건곤』은 저급한 오락거리가 아닌 역사와 문학, 무용과 음악, 박물관, 동물원, 활동사진, 극장 등 당대 첨단의 근대적 취미와 교양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는 『별건곤』이 지향한 ‘취미’의 최초 취지가 고급의 취미와 교양을 일반 민중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내용 또한 창간 초기에는 단순히 흥미거리를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계몽을 위해 동원되었던 것이었다.

『별건곤』에 등장하는 다양한 양식적 명칭은 뚜렷한 양식 개념에 입각하여 부여된 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 양식 표기는 특정 양식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편집자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들이 밝힌 양식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양식의 의미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이 표기한 특정한 양식 속에 들어있는 글 역시도 일관성을 갖고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당시 편집자들의 양식에 대한 혼란 때문이라기보다는 양식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즉, 편집자들의 관심

은 양식 자체보다는 어떠한 표기가 보다 더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성격의 글이라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양식명이 부여된 것이다.

또한 각각의 양식은 부여된 명칭의 경계를 넘어 혼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진술은 하나의 글이 편집자에 의해 무엇으로 표기되든지 간에 각 양식 간의 분류가 불가능할 만큼 차용과 삼투, 그로 인한 다양한 변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양식 간 전환과 교섭의 과정에서 하나의 양식적 개념으로 수렴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뜻한다.

잡지에 실린 다양한 글쓰기 상호간의 변개와 삼투, 차용의 과정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많은 경우 역사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통치 아래서 이러한 글쓰기를 통한 역사담론의 생산은 소극적으로는 위무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는 절멸의 위협에 맞서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그것은 곧 민족 성원들 사이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민족의 개별적 존재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담론 생산 자체가 민족 내부의 모순을 덮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즉,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도출된 ‘민족의 개별성’이란 결국 제국으로부터 민족을 분절시킴으로써 특수성과 지방성(locality)을 담보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었다. 결국 과거의 ‘역사’는 민족적 결집을 위한 매개체였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것은 제국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주요한 도구였던 것이다.

1930년대 대중지를 통한 역사를 소재로 한 글쓰기의 대중적 소비는 작가들에게는 역사소설 창작의 모티프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었다. 1930년대 중반, 이른바 ‘역사소설시대’라 불릴 만큼 역사소설의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들 작품이 갖는 대중성, 통속성의 근간은 바로 대중 종합지가 생산해 낸 역사 소재 글쓰기의 전략과 그것을 소비한 독자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상업적 목적에 의해 출판되는 잡지의 성격상 ‘역사’의 내용은 얼마든지 시대적 변화와 독자의 취향에

따라 기민하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 근대 대중지, 『별건곤』, 역사, 역사담론, 글쓰기, 양식, 집단기억, 민족, 독자.

I. 들어가며

일제 지배 하에서 생산된 역사에 관련된 여러 유형의 글쓰기는 민족 의식에 대한 직·간접의 표현일 수 있었다. ‘역사’는 식민지인에게 저항의 무기이거나 위무의 수단이었다. 또한 담론의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역사’는 가장 유용하면서도 익숙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저항 민족주의의 이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이 역사를 필요 이상으로 미화하거나 확대 축소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식민 치하에서 과거의 ‘역사’는 일제에 의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호출되어 재배치되었다. 역사서술이 갖는 이런 양가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협력이나 저항이나 민족이나 반민족이나 하는 단순도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 경계 위에서는 수많은 담론들이 교차하고 충돌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대중종합잡지의 역사 수용 방식과 역사를 소재로 한 다양한 글쓰기 전략에 주목하였다. 과거의 ‘역사’를 호출한 다양한 글쓰기들은 공식적 담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말하기도 하고, 혹은 훨씬 덜 말하기도 한다. 이들은 ‘역사’를 매개로 하여 특정한 대상이나 개념에 관한 지식을 생성시킴으로써 당대의 현실에 관한 설명을 산출하는 언표로서 작용하였다. 많은 경우 이러한 글쓰기 전략은 내셔널리즘을 비롯한 복합적인 이데올로기와의 공모 혹은 연대를 통해 생산된다.

본 연구의 일차 과제는 『별건곤』에 나타난 역사를 소재로 한 다양한

관련 독물(讀物)을 대상으로 그것의 글쓰기 전략들을 살피는 것이다. 『별건곤』 뿐 아니라 『삼천리』(1929. 7~1942. 1), 『조광』(1935. 11~1944. 8) 등의 종합지들도 문학의 대중적 유통이란 측면에서 오히려 전문지를 능가하는 역할과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잡지에는 소설·시·수필·희곡 등 문학작품뿐 아니라 동시와 동화·야담·사회과학·교육 분야의 글들, 신체제론을 비롯한 정치비평,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비상시 화장법’·‘남방의 향기’ 등과 같은 상업광고 그리고 여러 단체의 소식과 동정 등이 실려 있다.

본 연구가 역사나 종교, 교육 등 특정 분야, 혹은 여성이나 학생 등 특정 대상이 아닌 일반 대중을 상대로 간행되는 종합 대중지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들이 상대적으로 당대의 사회·역사적인 분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대중에 대한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개벽사’에서 발행된 『별건곤』의 경우는 『개벽』의 강제 폐간 이후 변화된 사회 현실과 대중의 코드에 맞춘 출판물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표면적으로 이들 매체에 실린 역사소재 글쓰기들은 산문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모두 일정한 문학양식으로 귀결시키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소설’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사 양식을 포괄한다. 연구 대상의 폭을 확장한 셈인데, 다양한 당대 서사물의 존재 양상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은 『별건곤』(1926. 11-1934. 6)에 실린 국내 외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논평(論評),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한 사화(史話), 인물의 전기(傳記), 역사를 소재로 한 애화(哀話)와 실화(實話), 대담(對談), 설문(設問), 그리고 허구적 요소가 강조된 야담(野談)과 기담(奇談)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가 당대 일제치하라는 시대적 상황과 대중을 상대로 한 종합 대중지라는 객관적 조건 아래에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글쓰기가 어떻게 생

산되고 배치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II. 『개벽』에서 『별건곤』으로 : ‘취미’와 ‘실익’을 통한 민중계몽의 모색

3·1 운동 이후 일제는 이른바 문화정치를 통한 일련의 유화정책을 실시하면서 민족운동의 분열과 개량화를 기도하였다. 따라서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적 통치로 바뀐 이후 조선에는 민족 자본의 신문이 생기고 잡지의 창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총독부 관제의 개편, 헌병경찰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민간신문과 잡지의 간행이 허용되면서 『조선일보』(1920. 3)와 『동아일보』(1920. 4) 등의 일간지가 창간되고, 『창조(創造)』(1919. 2), 『폐허(廢墟)』(1920. 7), 『장미촌(薔薇村)』(1921. 5), 『백조(白潮)』(1922. 1), 『금성(金星)』(1923. 11), 『영대(靈臺)』(1924. 8) 등과 같은 동인지가 속속 발간되면서 일제하 중요한 작품 활동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은 하나의 작은 문학 장으로서 폐쇄적인 성향을 고수했다.¹⁾ 이러한 폐쇄성은 당대의 윤리, 사상계와의 충돌 과정에서 예술의 독자성을 고집함으로써 상징적인 독립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폐쇄적인 성격 때문에 소수의 제한된 집단 형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동인지에 실린 작품 또한 대개는 동인들 간의 윤�독물(輪讀物)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1) 한국문학사에서 동인지가 가지는 의미는 첨언이 불필요하나 결국 일반 대중과의 소통이나 사회의 지배적 담론 형성에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는 김철, 「1920년대 동인지 문학의 전개와 그 역사적 성격」, 『잠 없는 시대의 꿈』, 문학과지성사, 1989. 김춘식, 『미적근대성과 동인지 문단』, 소명출판, 2003. 차혜영, 『한국근대 문학제도와 소설양식의 형성』, 역락, 2004 참조.

한편 이 시기에 대중적인 종합잡지로 등장한 『개벽(開闢)』(1920. 6)은 현상문예제도를 도입하여 신인을 발굴하였으며, 『조선문단』(1924. 10)과 같은 문학 종합지는 추천 제도를 통해 신인을 발굴하여 문학 활동기반을 확대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개벽』은 당시 “조선 유일의 대표적 사상 잡지”²⁾로서 기능하며 “조선 민중의 잡지”³⁾를 표방하였다.

『개벽』은 핵심 주체가 천도교의 조직과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개벽』을 천도교를 배경으로 한 종교 잡지라고 볼 수는 없다.⁴⁾ 잡지 발간의 주체들은 원칙적으로 종교적 색채를 배제했으며, ‘조선 민중의 잡지’임을 표방하면서 방법론상 민중 계도적인 ‘문화운동’의 형태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신사회(新社會) 건설을 위한 사회운동과 농촌개발운동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평등주의에 입각한 사회개조와 민족문화의 창달을 표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일제에 대한 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개벽』은 창간호에서부터 가혹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20년 6월 25일에 발행된 창간호와 이를 후인 27일에 발행된 호외(號外) 역시 모두 일제 당국에 의해 압수되어, 부득이 사흘 후인 30일에 다시 임시호를 발행하였다. 『개벽』지는 발행기간 중 발매금지(압수) 33회 이상, 정간 1회, 벌금 1회의 수난을 겪다가 결국 1926년 8월, 72호를 끝으로 강제 폐간되고 만다.⁵⁾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등이 『개벽』의 폐간조치에 대한 항의 기사를 연일 실고, 천도교 청년당과 관

2) 김진구, <開闢社の 첫 印象>, 『별건곤』, 1930. 7. 19쪽.

3) “……開闢雜誌가 이미 朝鮮民衆의 雜誌이오. 1個人 1團體의 所屬物이 아닌 以上은 民衆의 向上이 곳 이 開闢의 向上이오. 이 雜誌의 努力이 곳 民衆의 努力인지라 民衆과 한가지로 興廢存亡을 決하야 民衆의 精神으로 精神을 삼으며 民衆의 心으로 心を 삼을 것 必게 업슴을 斷言하는 것이 그 하나이며……”, <권두언>, 『개벽』, 1923. 7. 3쪽.

4) 1920년대 『개벽』의 성격과 활동에 관해서는, 최수일, 「1920년대 문학과 『開闢』의 위상」,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2. 참조.

5) 김근수, 『한국잡지사 연구』, 한국학연구소, 1992, 91-113쪽 참조.

서기자단(關西記者團)을 비롯한 각종 단체가 일제의 언론 탄압에 강경히 항의하였으나 『개벽』은 끝내 소생하지 못하였다

『개벽』의 폐간은 단순히 잡지사의 노선 때문만은 아니었다. 1926년 순종 서거 이후 6·10 만세운동과 일련의 사회주의 운동 단체들의 등장으로 정치 활동에 대한 감시가 심화되고 출판물에 대한 통제 검열 활동이 더욱 강화된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총독부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과 출판에 대한 검열 강화를 통해 조선어 잡지는 대중지로 전환하거나 대중지를 표방하게 된다. 하지만 총독부의 통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발행된 잡지는 많지 않았다. 1920년대에 비교적 오랫동안 발간된 종합잡지는 『개벽』, 『조선지광』, 『신여성』 그리고 『어린이』 정도였다. 1926년 『개벽』 폐간 후에는 『조선지광』, 『현대평론』, 『별건곤』, 『삼천리』, 『조광』 정도가 비교적 그 명맥을 이어가며, 대부분의 잡지들은 창간과 동시에 폐간되는 이른바 ‘三號雜誌’들이었다.⁶⁾ 한편 1929년의 공황은 대중들의 서적 구매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출판 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⁷⁾

이러한 외적 조건 아래에서 『개벽』을 발간하던 ‘개벽사(開闢社)’에서는 폐간된 『개벽』 대신 ‘취미잡지’를 표방한 『별건곤』을 창간하였다.⁸⁾ 『별건곤』은 1926년 11월에 창간하여 1934년 8월까지 통권 74호가 출간된

6) 일제의 탄압이 심하기는 했지만 이 시기 발간된 대중잡지나 여성잡지가 단지 오락성만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당시 잡지 출판인들은 잡지를 문명개화론의 시각에서 대중을 계몽하는 도구로 보았다. 김수진, 「1920~30년대 신여성담론과 상징의 구성」, 서울대 박사논문, 2005, 124-128쪽 참조.

7) 하지만 이 시기 일본어 출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다. 그것은 근대 지식과 사상 및 신문화에 대한 조선 식자층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김수진, 위의 책, 134-140쪽.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1, 26-39쪽 참조.

8) 이경돈은 『별건곤』의 창간 의의를 ‘계몽의 서사가 기울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취미의 영역에서 小說 外 敍事가 하위체도로써 안착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경돈, 「『別乾坤』과 近代趣味讀物」, 『대동문화연구』 46호, 2004. 6. 참조.

잡지이다. 이 잡지는 원래 무산대중이 싼 값으로 사서 볼 수 있는 교양과 재미를 함께 가진 잡지로 기획되었다.

……우리는 벌써 一年이나 전부터 趣味와 科學을 가추인 雜誌 한아를 經營하여보자고 하였섯다……趣味라고 無責任한 讀物만을 느러놓는다든지 혹은 放蕩한 娛樂物만을 記事로 쓴다든지-등 卑劣한 情緒를 助長해서는 안이될 쏘만안이라 그러한 趣味는 할수 잇는대로 撲滅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趣味雜誌를 시작하였다…….⁹⁾

『개벽』의 민중 노선이 방법론상 주로 민중 계도적인 ‘문화운동’의 형태를 취했다면, 『별건곤』은 건전한 ‘趣味·實益雜誌’를 표방한다. 여기서 ‘취미’란 ‘방탕한 오락물’이나 ‘비열한 정서’를 박멸하기 위한 도구이며, ‘실익’은 그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독자의 교양과 민중 계몽의 성취이다.¹⁰⁾ 『별건곤』이란 제호(題號)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별건곤』은 굴절된 모습이지만 『개벽』이 추구하던 민중운동의 또 다른 실천 방법일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창간호에서는 <貧趣味症慢性的 朝鮮人> (碧朶)¹¹⁾과 <大宇宙와 趣味>(夜雷)¹²⁾ 두 편의 글을 실어 취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 두 편의 글은 내용상 편집자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취미’의 중요

9) <餘言>, 『별건곤』, 1926. 11. 153쪽.

10) 한기형은 『개벽』 폐간 후 창간된 『별건곤』은 ‘『개벽』의 진보적 사회운동으로부터 완벽하게 이탈하였으며, 『개벽』이 주도했던 사회주의 선전활동은 『조선지광』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진보적 사회운동’으로부터의 절연이 곧 계몽에 대한 포기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별건곤』이 사회주의 이념으로부터 이탈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역사’를 통한 민중계몽의 시도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한기형, 「식민지 검열체제와 사회주의 관련 잡지의 정치 역학-『개벽』과 『조선지광』의 역사적 위상 분석과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례 학술회의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화” 자료집, 2005. 11. 26. 참조.

11) 碧朶, <貧趣味症慢性的 朝鮮人>, 『별건곤』 1926. 11, 57-61쪽.

12) 夜雷, <大宇宙와 趣味>, 『별건곤』 1926. 11, 63쪽.

성을 강조하는 ‘논설’에 속하는 글이다. 인간 본성으로서의 취미를 누릴 여건을 결여하고 있는 조선 민중의 현실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새로운 취미의 대상으로 “민중적 읽을거리”를 주창하고 있다. “무미진조한 생활을 벗어나 위안과 취미가 부속된 생활”을 통해서야 우리의 생활에 희망이 있으며, “취미는 곧 모든 창조력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분명 ‘논설’류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편집자는 ‘논설’이란 양식 표기 대신 독자들이 쉽게 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취미론’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시기 잡지들에 실린 논설에 언제나 ‘논설’이란 양식표기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취미론’이란 표기 역시 글의 내용을 독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일 뿐 양식명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양식 표기를 따로 하지 않고, 논설의 제목과는 별도로 편집자가 논설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제목을 달아 전체 목차에서 따로 분류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그것은 아마도 『별건곤』이 ‘취미·실익 잡지’를 표방하고 있고 그 창간호인 만큼 ‘취미’의 내용을 독자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어떠한 양식명이 표기되어 있으며 실제 그 내용과 얼마나 부합되는가라는 사실보다는, 그때그때 편집자의 판단에 의해 철저하게 독자를 의식하며 선택적으로 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독자를 의식했다는 진술은 곧 대중성과 계몽성의 획득을 목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때 대중성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계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소재가 역사이다. ‘역사’를 통해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역사를 소재로 한 여러 글쓰기를 통해 ‘과거에 대한 교육적 정보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계몽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별건곤』이 지향한 취미는 저급한 오락거리가 아닌 역사와 문학, 무용과 음악, 박물관, 동물원, 활동사진, 극장 등 당대 첨단인 근대적 취미와 교양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는 『별건곤』이 지향한 ‘취미’

의 최초 취지가 고급의 취미와 교양을 일반 민중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¹³⁾ 따라서 그 내용 또한 창간 초기에는 단순히 흥밋거리를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계몽을 위해 동원되었던 것이었다.

『별건곤』은 그 중에서도 사론(史論)·사화(史話)와 같은 역사물에 많은 비중을 두고, 따로 야담 혹은 강담란을 두어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조선야담사’의 창립과 더불어 이른바 야담부흥운동이 본격화된 때이던 1927년을 경과하면서 야담 관련 글쓰기는 한 호당 4-5편을 상회하는 양적 증가를 보인다. 이는 민중 계몽의 수단으로 역사가 효과적으로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사(正史)나 야사(野史), 혹은 야담 등 과거 역사에 대한 호출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귀속성의 느낌과 사고를 부여하는 ‘집단 기억’¹⁴⁾을 갖게 했으며. 그것은 곧 『개벽』에서 『별건곤』으로 이어지는 민중운동의 기본적인 토양이기도 하였다.

III. 양식에 대한 인식 부재와 글쓰기의 전략

대중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었던 많은 역사 관련 글쓰기들은 아직 뚜렷한 하나의 문학적 양식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별건곤』에 등장하는 애화(哀話)와 실화(實話), 사화(史話)와 야담(野談), 수기(手記)와 우화(寓話), 기담(奇談)과 괴담(怪談), 만담(漫談)과 한담(閑談) 등 다양한 양식적 명칭은 임의로 부여된 것일 뿐 뚜렷한 양식 개념에 입각하여 부여된 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편집자의

13) 이경돈, 앞의 글, 256쪽.

14) M.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translated by L. Cos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 224.

편의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野談’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같은 글이 다른 호에서는 ‘史話’로 표기되기도 하며, 인물의 전기(傳記)를 서술하면서 ‘論說’로 표기하기도 하는 것이다. 각 호마다 실린 기사의 내용, 혹은 형식에 따라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나름의 양식명을 표기하고도 있지만 그것이 뚜렷한 원칙에 의해 분류되었거나 호명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1926년 11월 『별건곤』 창간호는 創作 / 趣味論 / 隨筆想華諷刺 / 人物訪問과 會見 / 科學小說傳記 / 常識과 雜俎 등 크게 여섯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이중 문학 관련 항목은 創作 / 隨筆想華諷刺 / 科學小說傳記 등 세 항목이다. ‘創作’ 란에는 소설 두 편(이기영의 <朴先生>, 박영희의 <徹夜>)과 시 한 편(이상화의 시 <地球黑點의 노래>), 고시조 여섯 편 등 시와 소설을 배치하였고, ‘隨筆想華諷刺’ 란에는 팔봉의 <新秋雜感>, 정진태의 <洋行中雜觀雜感>의 수필과 윌딩테블生的 <自由結婚式場巡禮記>와 같은 풍자 형식의 글, 그리고 실존인물에 대한 회고 형식의 <金玉均 先生의 배노리> 등이 실려 있다. 한편 ‘科學小說과 傳記’를 묶어 ‘창작’이나 ‘수필류’와는 따로 구분하여 실고 있다. 당시 주로 야사(野史)를 바탕으로 한 저술을 주로 하였던 차상찬의 <만고정충 임경업장군(萬古精忠林慶業將軍)>이 ‘傳記’로 분류되어 있으며, 영국작가 웰스(Herbert George Wells, 1866-1946)의 <타임머신>(1895)을 ‘世界的 名作 八十萬年後의 社會, 現代人の 未來社會를 旅行하는 科學的 大發見’이란 설명과 함께 <八十萬年 後の 社會>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실고 있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수필과 잡문들을 따로 분류하고, 국내 작가들의 시와 소설은 ‘창작’으로, 같은 창작이라도 외국작가의 작품과 ‘傳記’는 따로 구분하여 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과 양식에 대한 인식이 언제나 뚜렷한 원칙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예컨대 웰스의 <八十萬年 後の 社會>도 ‘창작’이나 ‘번역소설’이 아닌 ‘과학소설’이란 별도의 양식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음호인 1926년 12월호

에는 ‘소설, 영화, 시’의 분류 항목에 포함되어 실린다. 연재되고 있는 같은 작품일 경우에도 호마다 분류목이 달라지는 것이다.

創作	李箕永, <朴先生>
	懷月, <徹夜>
	尙火, <地球黑點의 노래>
	고시조 여섯 편
趣味論	碧朶, <貧趣味症慢性의 朝鮮人>
	夜雷, <大宇宙와 趣味>
隨筆·想華·諷刺	八峰, <新秋雜感>
	鄭錫泰, <洋行中雜觀雜感>
	윳팅테블생 <自由結婚式場巡禮記>
	金振九 <金玉均 先生의 배노리>
	速記者, <暗室鶯歌>
	DTY, <사랑의 마호멧>
人物訪問과 會見	一記者, <周時經氏의 遺族訪問記>
	李益相, <婦人運動者 會見記>
科學小說·傳記	車相瓚, <萬古精忠林慶業將軍>
	웰스(Herbert George Wells), <八十萬年後의 社會>
常識과 雜俎	李樂春, <世界音樂名曲解說>
	金滄海, <人魚는 美女인가 動物인가>
	盤松雀, <제비의 旅行과 기럭이의 問安>
	崔承一, <身邊雜事>
	鄭顯模, <周王山探勝記>
	<鼻下八寸>
	<一蟲一言>
	<統計室>

-별건곤 창간호(1926.11) 목차 분류표-

『별건곤』의 발행인이기도 하였던 차상찬은 1929년 6월 ‘男兒二十未平國 後世有稱大丈夫’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발간된 『別乾坤青春號』에서 ‘東西偉人青春時代’란에 본명으로 <青年大將으로 滿洲를 드리친 南怡將軍>을, 靑吾生이란 필명으로 <新興國의 靑年建國活動記>를, 靑吾란 필명으로 <天中佳節 端午이약이>, <讀金庾信傳有感> 등 총 4편의 글을

신고 있다.¹⁵⁾ 이 중 <青年大將으로 滿洲를 드리친 南怡將軍>¹⁶⁾이나 土耳其(터키)의 초대 대통령 케말 파샤(Mustafa Kemal)를 다룬 <新興國의 青年建國活動記>¹⁷⁾는 특별한 양식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채, 서로 다른 분류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두 글 모두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실제 인물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는 사화(史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인 사실 뿐 아니라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야담류의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두 글의 공통점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동일한 성격의 글이 양식 표기 없이 따로 분류되거나 혹은 다른 양식 표기로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식 표기는 특정 양식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편집자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들이 밝힌 양식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양식의 의미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이 표기한 특정한 양식 속에 들어있는 글 역시도 일관성을 갖고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당시 편집자들의 양식에 대한 혼란 때문이라기보다는 양식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즉, 편집자들의 관심은 양식 자체보다는 어떠한 표기가 보다 더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성격의 글이라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양식명이 부여된 것이다. 차상찬의 글만 살펴 보더라도 유사한 성격의 글들이 사화(史話), 열전(列傳), 전기(傳記), 비화(秘話), 실록(實錄), 비사(秘史), 이면사(裏面史), 애화(哀話), 회고(回顧) 등 다양한 양식명으로 표기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하지만

15) 차상찬은 김진구와 함께 『별건곤』의 단골필자 중 하나였다. 차상찬은 거의 매호 본명과 자신의 호 ‘靑吾’를 필명으로 글을 신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호에 서로 다른 필명으로 2-3개의 글을 동시에 신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 잡지들이 필자관을 해결하는 유용한 방식 중에 하나였다.

16) 차상찬, <青年大將으로 滿洲를 드리친 南怡將軍>, 『별건곤』 1929. 6. 16쪽.

17) 靑吾生, <新興國의 青年建國活動記>, 『별건곤』 1929. 6. 81쪽.

18)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史話 : 李适元帥의 甲子反亂記>

실제 내용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 형태인 ‘실록’이 ‘사회’·‘비사’와 겹치고, ‘비화·비사이면사’의 경우도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된다. ‘애화’는 말 그대로 ‘야담’ 성격의 글을 내용에 맞춰 표기한 것일 뿐이다. 이렇듯 다양한 양식명의 표기와 분류는 부여된 명칭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변개와 삼투의 모습을 보여준다.

양식명의 혼란과 표기의 무원칙성에는 당시 열악한 출판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당시의 “원고난·경영난·검열난 등 이른바 삼란(三亂)”¹⁹⁾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잡지 발간의 여러 정황을 미루어볼 때 잡지 편집에 일관된 원칙을 지켜나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잡지에 연재되던 글이 아무런 설명 없이 중단되기도 하며, ‘미완(未完)’ 혹은 ‘차호속(次號續)’이란 설명 뒤에도 다음 호에 실리지 않거나²⁰⁾ 몇 호 지난 후에 다시 연재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각의 양식 난을 고정하고 글을 실기란 사실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편집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양식명이 표기되거나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양식명이 혼용되고 있다는 진술은, 하나의 글이 편집자에 의해 무엇으로 표기되든지 간에 각 양식 간의 분류가 불가능할 만큼 차용과 삼투, 그로 인한 다양한 변개가 이루어지고

(1927. 3), <歷代陰險人物討罪錄 : 殺主魅·害賢鬼 反覆無雙의 奸魁 鄭道傳> (1927. 8), <歷代叛逆者列傳 : 綠林豪傑 林巨丁>(1928. 7), <神出鬼沒 東學亂中の 秘話>(1928. 8), <三尺長劔으로 五百年 大業 李太祖 建國 實錄>(1929. 4), <仁祖反正의 裏面史>(1930. 5), <羅末怪傑 泰封王 弓裔 秘史>(1930. 6), <端午哀話, 魚腹에 과묵친 美人·忠臣>(1931. 7), <東洋史上 風雲 만튼 日清戰爭의 回顧>(1931. 7), <薩水大戰記 朝鮮 最初의 大戰爭>(1932. 12), <노래에 나타난 情話, 琉璃王과 黃鳥歌>(1933. 4) 등.

19) <편집후기>, 『三千里』 1929. 6. 50쪽.

20) 웰스의 <八十萬年 後の 社會>의 경우, 두 번째 연재의 말미에 ‘未完’이란 표기와 함께, “점점 신기한 발견과 무서운 광경과 재미있는 이야기는 다음으로부터 진경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취미 만혼 사건의 발단은 다음호라야 볼 수 있다.”(『별건곤』, 1926. 12. 136쪽)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설명 없이 연재가 중단되고 만다.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양식 간 전환과 교섭의 과정에서 하나의 양식적 개념으로 수렴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뜻한다. 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양식 표기 자체가 이들 다양한 단형서사들의 문학사적 가치를 절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IV. 호출된 역사와 ‘집단기억’의 구성

대중매체는 그 본성에 따라 당대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구조와 긴밀하게 관련된다. 대중매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정보나 사상·신념 등의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구축하며 그들 간의 상호 밀접한 관계를 설정하고, 나아가 각각의 요인들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신문·방송·잡지 등 여러 매체는 그가 속한 집단의 문화적 ‘기억’들을 소통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 중의 하나이다. ‘기억’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집단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억’은 각종 집단의 정체성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고 과거의 현재적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대중매체는 과거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역사인식의 방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매체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기억의 형태와 내용을 조건 짓는 담론을 형성하고 그에 간섭한다. 매체는 과거에 대한 다양한, 때로는 상충되는 기억을 매개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 매체는 개인의 기억에 앞서거나 개인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사람들의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²¹⁾ 형성에 중요

21) M.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translated by L. Cos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 224. 집단기억과 담론 형성,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한국적 적용의 사례는 이동후, 「국가주의 집합기억의 재생산-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003년 봄, 11권 2호 참조.

한 역할을 담당한다. 집단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회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과거를 현재의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집단기억을 공적 공간에서 전달되고 협의되는 '과거에 관한 서사'로 보았을 때, 일제하 신문 잡지 등의 여러 매체 또한 이러한 '집단기억'의 생산을 통해 서사를 구체화하고 소통시키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 하나의 담론으로서 집단기억은 특정한 주체의 위치나 사회적 경계, 혹은 권력 관계로 작동할 수 있다.²²⁾

잡지에 실린 다양한 글쓰기 상호간의 변개와 삼투, 차용의 과정 중에서도 하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많은 경우 역사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별건곤』에 등장하는 '史話'는 역사기술방법 중 하나인 '傳'의 방식이 주를 이룬다. 초기에는 주로 근대적 인물을 다루었다가 점차 과거의 위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때 근대적 인물들을 다룰 때는 주로 회고나 자서전, 번역을 통해 소개되며, 과거의 위인들을 다룰 때는 주로 열전(列傳)의 형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 시기까지도 역사의 강박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역사적 사실(史實)은 허구라는 자질과 관계를 맺기 어려웠다. 하지만 차츰 전대(前代) 혹은 가까운 시대 실존했던 사후의 인물들에 대한 가상 인터뷰나 방문기, 토론회 등²³⁾을 통해 사실과 허구가 공존할 수 있는 균열을 만들기 시작한다.

22) 예컨대 한 국가의 집단기억을 구성하는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국사(國史)는, 역사의 기억을 전유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기제로 작동하기 쉽다. 즉, 특정 권력 주체의 기억에만 정통성을 부여하고 다른 기억은 배제하거나, 혹은 권력 집단의 기억질서에 맞게 수정하거나 조작하여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로는 이영훈, 「한국 국사 교과서에 기술된 일제의 수탈성과 그 신화성」, 한일, 연대 21 발족기념 심포지엄, “한일, 새로운 미래 구상을 위하여-교과서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문, 59-77쪽, 2004년 11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임지현, 「국사: 제국에 포섭된 민족」, 『문학판』, 2005년 봄, 통권 14호, 31-44쪽 참조.

23) 『별건곤』 1927. 3: <玄黃堂에서金玉均 地下國訪問記, 現代 朝鮮青年에게 與하노라> / 張志淵柳瑾李鍾一, 地下國訪問記, <우리가 본 現下 言論界> / 鄭生謹記 地下國訪問記, <正音を 創製하신 世宗大王께옵서> / 康眞海隅에서 茶

이러한 여러 시도 중에서 이른바 ‘드면錄’과 같은 기획은 역사적 사실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글쓰기라 할 수 있다. ‘드면錄’이란, 과거의 역사를 “만약에 그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했더라면” 식의 가정 속에 재구성한 글이다.²⁴⁾ ‘드면錄’은 지난 과거를 당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당대 역사·의식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소재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씌어지는 시기의 문제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형식은 지난 과거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별건곤』 1927년 7월호(제2권 5호)에는 ‘드면錄!! 그새에 이리했으면 只今 朝鮮은 엇지 되었슬가’라는 표제 아래 <壬辰倭亂 當年에 萬若 栗谷이 생존하였드면>, <丙子胡亂때에 林慶業將軍을 信任하였드면>, <大院君이 만약 外人排斥을 안했드면>, <最初의 民衆運動을 니르킨 東學黨이 政治的訓練만 잇섯드면>, <金玉均先生の 三日天下가 成功했드면> 등 모두 5편의 글이 실려 있다.²⁵⁾

山 丁若鏞 地下國訪問記, <經濟困難에 울고 있는 同胞에게> / 四溟堂 任休靜 地下國訪問記, <墮落하여 가는 現代 僧侶들에게> / 莊陵忠臣壇에서 朴堧 地下國訪問記, <現代 男女音樂家에게 與하노라> / 먹적골 許生 地下國訪問記, <所謂 富 所謂 貧者 諸君에게> / 巖石樓下에서 論介 地下國訪問記, <現代的 娼妓 娼婦에게 與하노라>. 『별건곤』 1927. 8 : 鶴步 歷代陰險人物討罪錄, <事大主義와 依賴思想의 張本人 所謂 海東朱子 宋時烈> / 車靑吾 歷代陰險人物討罪錄, <殺主魅·害賢鬼 反覆無雙의 奸魁 鄭道傳> / 事實珍談, <死刑 못해서 國祿을 주 어> / 趙奎洙 歷代陰險人物討罪錄, <朝鮮의 土禍를 즈음으로 이르킨 大凶孽·大奸物 柳子光>. 『별건곤』 1928. 12 : 金振九 <孫逸仙과 袁世凱의 地下 面談記, (= 黃泉探訪記에서)>. 『별건곤』 1932. 6 : 熊超 崔英淑地下訪問記, <冥府行列車를 追격하면서> 등.

- 24) 『別乾坤』의 편집자처럼 ‘드면錄’이라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三千里』와 『朝光』에서도 가상 설정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발견된다. 『三千里』의 경우에는 이러한 설정을 활용한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기사들도 많이 발견된다. 『三千里』 : <돈 十萬圓이 있다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1929. 7. <大聖이 오늘 朝鮮에 태어난다면>, 1932. 12. <世界的 思想家, 文豪 招請案>, 1935. 12. <내가 轍環天下 한다면 어느 인물을 보고 올까>, 1936. 2. <國史上人物로 現時局에 가져오고 싶은 사람>, 『朝光』 1941. 12. 등

‘드면록’을 기획하면서 편집자가 필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다소 희곡적으로 취미적으로의 설명 업는” 형식²⁵⁾이었다. 어차피 이미 지나간, 현재로서는 확정된 역사이므로 구차한 설명이나 논설조의 이야기보다는 대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학적 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나아가 가상의 역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先人の 非를 指하는 동시에 後人에게 주는 큰 교훈이요 銘鑑”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다.

‘드면록’이란 결국 가상으로 설정된 공간에서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과의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실제와 허구가 서로 착종되고 변개되어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산출해내는 양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상의 공간에서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라고 해서 ‘드면록’과 같은 독물(讀物)의 생산이 단순히 흥밋거리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편집자 역시도 이러한 기획이 “마치 수백년된 塚中枯骨을 보고 무슨 약을 먹었스면 죽지 안었스리라는 것과 가튼 감이 잇”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他山の石”²⁷⁾을 삼기 위한 것임을 적시하고 있다.

결국 ‘드면록’과 같은 글쓰기의 기획은 낯익은 역사를 낯설게 하고,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현재의 역사와 다르게 가정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개인의 의식뿐 아니라 민족의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⁸⁾ 이러한 기획은 단지 ‘역사’를 실험과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공적 역사에 대한 메타적 인식을 수반하게 하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려는 편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별건곤』 1928년 5월(제2권 3호) ‘조선 자랑호’에는 기사의 절반 이상이 사회와 야담, 역사 관련 서술로 채워져 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조

25) <드면록>, 『별건곤』 1927. 7. 2-25쪽.

26) 洪承壽, 위의 글, 『별건곤』, 위의 책, 4쪽.

27) 車相瓚, 위의 책, 11쪽.

28) 이경돈, 『『별건곤』과 近代趣味讀物』, 『대동문화연구 46호』, 2004. 6. 282쪽.

선 자랑호'의 기획은 사실 위험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발행이 늦춰지다가 통권 제12·13호의 합본호로 빛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일제의 검열에 의해 처음 계획했던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왕청 틀리는” 내용을 실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편집자는 “조선의 ‘自尊’ 과 ‘自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무모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였기에 ‘자랑호’의 발행을 감행했다고 밝히고 있다.²⁹⁾ 따라서 특정 기사들은 목차에만 나와 있고 실제 내용은 삭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조선 자랑호’에는 이충무공 관련 기사와 고구려의 을지문덕, 조선의 세종대왕, 그리고 한글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연암 박지원의 사상과 고산자 김정호 등 실학과에 관련된 내용들, 그 밖에 민요, 전설, 야담 등이 실려 있다.

이 중 주목할 것은 ‘東西無比 小說以上 朝鮮人情 美談集’이란 대목이다. 이 시기 『별건곤』에는 소설 그 자체보다는, 소설과의 비교를 상정케 하는 ‘小說以上’이란 제목을 붙이거나, 혹은 ‘○○소설’처럼 앞에 내용을 짐작할만한 다른 수사가 붙은 여러 단형서사들³⁰⁾이 발표되는데, 대개는 전설이나 설화, 기담, 사실담, 회고담 등이 대중을 다루고 있다. 이는 이미 ‘소설’이 하나의 안정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역사를 매개로 한 여러 단형서사들이 소설에 대한 대타항

29) <권두언>, 『별건곤』 1928. 5.

30) 野話小說: 김운정, <찬 눈물, 더운 눈물>(1927. 4) / 小說보다 기이한 事實 로-맨쓰: 天外漢, <苦戀悲戀 7년 片愛 奇錄>(1927. 7) / 小說 以上 事實秘話: 金東進, <海蔘威의 戀愛復讐劇>, 李有根, <秘密의 凶家>, 李定鎬, <張小姐의 逃走結婚>(1928. 1) / 小說 以上 珍奇한 三大事實秘話: 金東進, <春秋로 懷憶되는海蔘威의 戀愛復讐劇>, 李有根, <秘密의 凶家>, 李定鎬, <古代小說가튼 참事實-張小姐의 逃走結婚, 두 번이나 家門을 脫走하여 約婚한 남편을 좇차>(1928.2) / 小說以上·論文以上·讀物中の 讀物, 連作講談: 최남선 외, <아침>(1928. 8~1929. 12) / 小說以上 映畫以上 珍奇戀愛展覽會: 石初生, <얼굴도 모르는戀愛>, 林白虎, <만世上에 가셔도 눈물로 태우는戀愛>, 龍塘浦人, <電話로 三年間戀愛>, 迫眞, <二年동안이나 편지연에만 하고 서로 맞다면 시치미를 딱>, 雙S生, <넘어도 珍奇한戀愛>(1929. 1) 등.

으로 기능하며, 아직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역사소설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지만 대중의 역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대중적 소비는 그들에게 ‘역사적 계승의식에 입각한 공동의 기억’³¹⁾을 갖게 하였다. 또한 그것은 식민지하의 민중들에게 자기 정체성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근원적인 동력이 되었다. 역사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면서 하나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아 나간다는 것이다. 역사적 기억 중 특정한 기억이 현재에 지속적으로 불러들여지고 의미화 되는 가운데, 공동체 구성원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보편적 역사적 맥락을 가지게 되었다. 대중 인쇄매체도 역사적 기억을 지속적으로 기념하고 상기시키며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는 또 다른 매개체로써 독자들을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호명해왔다. 역사적 기억으로서의 과거는 이제 단순히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는 과거’이고 일정한 담론의 틀로 불러들여지는 것이다.

강압적인 식민통치 아래서 글쓰기를 통한 역사담론의 생산은 소극적으로는 위무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는 절멸의 위협에 맞서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그것은 곧 민족 성원들 사이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민족의 개별적 존재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담론 생산 자체가 민족 내부의 모순을 덮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즉,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도출된 ‘민족의 개별성’이란 결국 제국으로부터 민족을 분절시킴으로써 특수성과 지방성(locality)을 담보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었다. 결국 과거의 ‘역사’는 민족적 결집을 위한 매개체였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것은 제국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주요한 도구였던 것이다.³²⁾

31) 김진수, 「역사적 실존에 대한 상상-‘역사의 내면화’ 경향에 대하여」, 『문학관 14』, 2005, 89쪽.

32) 1930년대 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조선 고적 보존 운동’이 총독부의 지원과 관

V. 남은 문제들

1920년대 중반 『별건곤』의 창간은 일제의 언론 탄압과 이로 인한 『개벽』의 폐간에 따른 기획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취미라는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맞추어진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별건곤』이 『개벽』의 후속 주자였다는 사실은 불가분 『개벽』의 계몽적 색채를 일부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단순한 ‘취미독물’이 아닌 ‘계몽독물’로서의 기능 또한 담당하게 되었다.³³⁾ 하지만 ‘개벽사’에 의해 또 다시 종합잡지 『彗星』이 발간되면서 그 역할이 분할되자 『별건곤』은 별다른 성격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가벼운 형식으로서의 전환을 요구받게 된다. 『개벽』의 폐간과, 이후 ‘개벽사’에 의한 잡지 발간의 정황을 편집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폭풍광우와 싸호면서 도산검수를 수업시 넘어 오면서 그중에서도 우리는 개벽 운동의 충실을 도모하기에 한 때도 게으르지 못하였나니 『어린이』, 『신여성』, 『별건곤』, 『학생』의 계속 발행이 그것이요 출판물 간행이 그것이요 십삼도 괴본도사 운동이 그것이요 사우데도의 확충이 또한 그것이었다. 그리하여 오늘 개벽사 출판물의 총독자는 수십만으로 헤이고 글밭은 해외 각디에까지 퍼지게 되야 스스로 이 수만흔 동지 후

민 합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이르면, 당시 과거의 역사를 호출하고 영웅을 호명하는 작업이 일제에 대한 민족적 저항의 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는 오히려 일제의 식민 지배를 공고화하는데 어떻게 이용되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식민지 당국에 의한 ‘후원을 통한 견제’의 기조는 정치·군사적 지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식민지인 자신에 의한 지배의 내면화와 재생산을 기도한 것이기도 했다. 1930년대 초 민족주의 진영의 고적보존운동에 관해서는 이지원, 「1930년대 민족주의계열의 고적보존운동」, 『동방학지』 77·78·79 합본호, 1993 참조.

- 33) 이경돈은 취미라는 새로운 범주가 개발되면서 계몽독물에서 취미독물로 전환되는 과정과 취미독물이 저급문화, 하위문화로 인식되는 데에는 약간의 시차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별건곤』 초기까지도 취미독물이 고급문화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계몽담론의 자장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46집, 2004. 6. 254-259쪽.

원의 든든한 힘을 맞게 된 것을 깃버하기에 니르렀다. 그러나……던하 독자와 함께 섭섭한 생각을 가티하게 되는 것은 지난 병인 녀름에 『개벽』이 죽어 우리의 운동의 한 팔이 떠러진 그것이요 그리하여 이날 우리의 가슴에 용소슴치는 감회나마 식원히 이악이 할 자유가 업는 그것이다. 『개벽』 대신으로 운동 중에 잇는 혜성(慧星) 잡지가 새로히 활약 할 날이 갓가운 압날에 잇스며 잡지 간행의 자매 사업으로 새로히 계획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잇는 바 이리하여 새로운 진용으로써 던하 동지와 함께 더욱 용맹히 싸화나감으로써 십 년째부터의 새 기록을 지을 것을 스스로 맹서할 뿐이다.³⁴⁾

『개벽』의 폐간 이후에도 『어린이』, 『신녀성』, 『별건곤』, 『학생』 등을 계속 발행하며 ‘개벽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이제 『개벽』 대신 『혜성』을 발간하여 그 운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내용이다. 『혜성』은 1931년 3월 1일에 창간되어 1932년 4월 15일 통권 13호로 중단되었고, 5월부터는 『제1선』으로 개제되어 발행되었다. 『별건곤』과 마찬가지로 편집 겸 발행인은 차상찬이 맡았다. 『혜성』을 창간하며 『별건곤』의 가격을 5전으로 내리면서 『별건곤』은 ‘5전 잡지’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혜성』은 『개벽』과 같은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 이것이 곧 『제1선』으로 개제한 이유이기도 하다. 『제1선』은 1933년 9월 5일 통권 11호로써 중단되었다.³⁵⁾ 비록 5전 잡지로 불렸지만 『별건곤』의 중간이 1934년 6월이니 그 명맥은 『혜성』과 『제1선』을 합친 기간보다 오래 지속된 셈이다. 『별건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내용이 사회와 야담이었음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중의 수요 또한 짐작할 수 있다.

다양한 역사물의 생산과 대중적 소비는, 역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하고 역사소설의 잠재적 독자층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식민지 하에서 발행되던 잡지의 성격은 일제 식민 권력의 지배정책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이들 잡지에 실린 역사관련 독물(讀

34) <권두언>, 『별건곤』, 1929. 8. 1쪽.

35) 김근수, 『한국잡지사 연구』, 한국학연구소, 1992, 148-151쪽 참조.

物) 역시 이러한 외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따라서 『별건곤』, 『삼천리』, 『조광』 등에서 ‘역사’를 동원하고 배치하면서³⁶⁾ 염두에 두었던 독자는, 근대계몽기 역사전기소설의 독자나 조선야담사가 주도하였던 야담 운동 초기의 청중과는 다른 문맥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역사전기소설과 야담 운동이 민족적 가치를 앞세운 계몽의 수단과 민중 교화의 도구로써 ‘역사’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이들 잡지가 선택한 ‘역사’는 점차 독자를 유인하고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갔다.

1930년대 중반, 이른바 ‘역사소설시대’라 불릴 만큼 역사소설의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20-30년대 대중지를 통한 역사를 소재로 한 글쓰기의 대중적 소비는 작가들에게는 역사소설 창작의 모티프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었다. 이들 작품이 갖는 대중성, 통속성의 근간은 바로 대중 종합지가 생산해 낸 역사 소재 글쓰기의 전략과 그것을 소비한 독자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상업적 목적에 의해 출판되는 잡지의 성격상 ‘역사’의 내용은 얼마든지 시대적 변화와 독자의 취향에 따라 기민하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근대문학사 연구에서 신문이나 동인지 등에 나타난 문학 작품과 문학적 현상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잡지라는 매체, 특히 대중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하

36) 비슷한 시기 발행되었던 『三千里』와 『朝光』의 역사물 수용 방식은 상이하다. 『朝光』은 거의 매호 빠지지 않고 야담·사화·기담·전설 등의 역사물들과 역사 관련기사들을 싣고 있다. 반면 『三千里』는 1935년 6월에 김동인, 유광렬, 윤백남 등이 참여한 ‘야담 특집’이 한 차례 기획되었을 뿐, 실제로는 야담이나 사화보다 과거 인물에 대한 회고나 소개, 역사 관련 논설류의 글들이 대세를 이룬다. 그렇다고 이러한 모습이 이들 두 잡지의 독자들이 분화되어 있었다거나, 편집자가 잡지에 실릴 ‘역사물’에 대한 편집 원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아마도 신문사 발행의 『朝光』은 좀더 많은 필진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김동환 개인이 출자한 『三千里』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김동환은 한 호에 본명과 필명을 오가며 동시에 여러 편의 글을 싣기도 하였다.

지만 한국문학사의 주요 작품들이 『개벽』, 『별건곤』, 『조광』, 『삼천리』 등 대중지를 통해 생산되었음을 상기하면 문학작품 자체뿐 아니라 작품이 실린 매체의 성격과 작품과 함께 실려 있는 다양한 양식의 문학 관련 글들과 기사 또한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³⁷⁾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역사 담론에 대한 분석 중 많은 부분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영역에 걸쳐 있다. 요컨대 잡지에 실린 '야담', '민담', '야사', '설화', '괴담' 등은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호출해 낸 것이다. 시기적으로 이들은 예전에 존재했던 이야기가 근대 이후에 재생산된 것이면 서도, 그것의 양식적 특성은 과거의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이들 이야기 양식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두 분과 어디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역사 관련 서사에 관한 다층적인 접근과 연구는 기존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분과 간의 경계를 넘어 상호 학문적 소통과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적 제도인 잡지라는 매체와 출판 시장, 그리고 그를 통해 생산되는 다양한 양식명의 서사물들을 우리 문학사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개별 문학작품보다는 우선 그것이 실린 매체에 주목하였다. 이는 문학 연구의 대상을 구체적인 개별 문학 텍스트로부터 그와 관련된 매체,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출판과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으로 확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개별 서사물의 의미는 문학 자체의 동력만으로, 혹은 외재적인 조건과 그의 영향만으로도 해명될 수 없는 상동성을 지닌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당시의 지배적인 담론 형성의 과정을 살피는 일은 문학장의 범위를 넘어 사회학, 역사학 등 방계 학문과의 소통을 통해 좀더 분명히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37) 『삼천리』를 대상으로 한 다음의 결과물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출간된 최근의 성과이다. 천정환, 이경돈, 손유경, 박숙자 편, 『식민지 근대의 뜨거운 만화경: 『삼천리』와 1930년대 문화정치』,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참고문헌

■ 자료

- 국학자료원, 『한국 근대사 자료총서』, 1999.
이광린·신용하, 『자료로 본 한국문화사 - 근대편』, 일지사, 1984.
한국연구원, 『소장 잡지 목록 1895-1950』, 한국연구원, 1983.
한국잡지협회, 『한국잡지 100년』, 1995.
황민호, 『식민지시대 자료총서』 15, 계명문화사, 1992.
『개벽』, 『별건곤』, 『삼천리』, 『조광』 등.

■ 논저

- 강영주, 『한국 역사소설의 재인식』, 창작과비평사, 1991.
공임순, 『식민지의 적자들』, 푸른역사, 2005.
권보드래, 『한국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권영민,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출판부, 1999.
권태환, 『일제 식민통치와 사회구조의 변화』, 정신문화연구원, 1990.
김경일, 『한국 근현대사에서 근대성의 경험과 근대주의, 근대사상』, 민음사, 1997.
김근수, 『한국잡지개관 및 별호 목차집』, 한국학연구소, 1973.
_____, 『한국 도서 해제 논고』, 청록출판사, 1979.
_____, 『한국 잡지사 연구』, 한국학연구소, 1992.
김수진, 「1920-30년대 신여성담론과 상징의 구성」, 서울대 박사논문, 2005. 124-128쪽.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사』, 솔, 1997.
_____,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출판, 2005.
김윤식, 『한국 근대문학 사상 연구』, 일지사, 1999.

- 김진균정근식 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 김진수, 「역사적 실존에 대한 상상: 역사의 내면화 경향에 대하여」, 『문학판』 14, 2005. 봄, 89쪽.
- 김창현, 『한일 소설 형성사 - 자본이 이상을 몰아내다』, 책세상, 2002.
- 김춘식, 『미적 근대성과 동인지 문단』, 소명출판, 2003.
- 나병철,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2001.
-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 박찬승, 『한국 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2.
- 박헌호, 『식민지 근대성과 소설의 양식』, 소명출판, 2004.
-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서적 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1, 26-39쪽.
- 三枝壽勝 외,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 상허학회, 『희귀잡지로 본 문학사』, 깊은샘, 2002.
- 신형기, 『이야기된 역사』, 삼인, 2005.
-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46호, 2004, 6, 254-282쪽.
- 임지현, 「국사 : 제국에 포섭된 민족」, 『문학 판』, 2005, 봄, 31-44쪽.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 吉野作造, 『明治文化全集 18 : 雑誌編』, 日本評論社, 1928.
- 魯曉鵬, 『역사에서 허구로 - 중국의 서사학』, 조미원 외 역, 길, 2001.
- 東京大 東洋文化研究所, 『植民地雑誌所藏言論文目録』, 東京大 東洋學文獻センター, 1984.
- 小森陽一 編, 『내셔널히스토리를 넘어서』, 이규수 옮김, 삼인, 2002.
- 小森陽一/富山太佳夫/沼野充義/兵藤裕己/松浦壽輝 編, 『岩波講座 文學 9. フィクションか歴史か』, 岩波書店, 2002.

M.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translated by L. Cos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Maurice Courant, 『한국 서지』, 이희재 역, 일조각, 1997.

H. K. Bhabha,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나병철 역, 소명출판, 2002.

M. Robinson,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김민환 역, 나남, 1990.

P. Duara,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문명가손승희 역, 삼인, 2004.

<Abstract>

The Pattern of Embracing ‘History’ and the Writing Strategies of Modern Popular Magazines

Lee, Seung-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writing strategies used in various reading materials which are concerned with history contained in 『Byeolgeongon(별건곤)』 (Nov. 1926–Jun. 1934). The withdrawal of past history enabled members of a community to have a ‘collective memory’, which endowed them with feelings and thoughts with strong attribution, and this was also the basic foundation of the folk movement, which led to 『Byeolgeongon』 beginning from 『Gaebyeok(개벽)』.

『Byeolgeongon』, which claimed to be a ‘magazine for leisure and practical benefit’ at the time of its first publication, was focused not on vulgar pastimes but on modern tastes and culture. Therefore, its contents were mobilized for enlightenment rather than for simple interests.

The diverse, stylish names that appeared in 『Byeolgeongon』 cannot be thought of as being named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clear style. This was not because editors back then were confused about a certain style but because they were absent in perception about a style itself. The interest of the editors was regarding what writing would provoke the attention of the readers more rather than a certain style

itself.

The production of historical discourse through such writing under the forcible Japanese colonial rule functioned as a means of consolation from a passive perspective, and as a means to face threats of eradication from an active perspective. This made it possible to enhance bonding among the people, and, at the same time, confirmed the ‘individual existence of the people’. However, the production of such discourse, on the other hand, became a means to hide contradictions within the people.

That is, the ‘individuality of the people’, which was withdraw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couldn’t do more than ensure special characteristics and locality by dividing the people from the empire, in the end. Ultimately, the ‘history’ of the past was a vehicle for unifying the people, and yet, it was a major tool for justifying and rationalizing the colonial rule of the empire.

The production of historical novels was so active as to be called ‘the age of historical novels’ in the mid-1930s. The root of the popularity and vulgarity of those works could be found in readers who consumed them as well as in the writing strategies of historical substances that were produced by popular magazines. Given the nature of a magazine published for profit, the contents of ‘history’ could be readily and quickly altered according to changing of the times and to the tastes of readers.

Key Words : Popular magazines, 『Byeolgeongon(별건곤)』, history, historical discourse, writing, collective memory, reader.

근대 대중지의 ‘역사’ 수용 방식과 글쓰기 전략 35

■ 논문접수 : 2010년 10월 30일

■ 심사완료 : 2010년 12월 6일

■ 게재확정 : 2010년 12월 8일